

전북, 중국자본 유치를 위해 유망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연구진 안 종 석 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 기 훈 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 진 성 전주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제 혜 금 전주대학교 경영학부 전임강사
이 동 기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Contents

1. 전북의 중국특화, 무엇으로부터 출발할 것인가?
2. 전북의 교역추이 분석
3. 전북의 대중국 산업경쟁력분석
4. 정책적 시사점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2년 1월 9일 vol.71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발행인 : 원도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밭길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전북, 중국자본 유치를 위해
유망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1. 전북의 중국특화, 무엇으로부터 출발할 것인가?	
1) 전북의 대중국 교류협력 인프라 구축 필요	4
2) 외국기업의 전북진출을 위한 유망산업 발굴이 시급	4
2. 전북의 교역추이 분석	
1) 대중국 교역 현황	5
2) 전북의 수출구조분석	6
3) 전북의 수입구조분석	8
3. 전북의 대중국 산업경쟁력 분석	
1) 현시비교우위	10
2) 시장별 비교우위	10
3) 무역특화지수	12
4) 무역특화지수의 동태적 변화	13
4. 정책적 시사점	
1) 전북의 대중국 비교우위산업	14
2) 전북의 대중국 유망 품목	16
3) 전북의 중국자본 유치산업	17

요약

○ 전북의 대중국 비교우위산업

- 전북의 대중국 비교우위산업은 기타 운송장비, 광산품, 금속 1차제품, 가죽제품,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전기기기 등임
- 전북은 섬유 및 의류, 자동차, 금속 1차제품 중국에 수출특화되어 있음
- 목재 및 종이제품은 과거에 비해 수입특화지수가 작아져 수출상품화 가능성 있음

〈표 1〉 전북 대중국 10대 수출품목의 무역특화지수 변화

	경제적 의미	전북 대중국 TSI	한국 대중국 TSI
경쟁력강화	수출주력제품	전기기기 및 부분품	광산품, 기타 운송장비
	수출전략제품	광산품, 기타 운송장비 금속 1차제품, 자동차	-
	수출상품화 가능성	목재 및 종이제품	목재 및 종이제품
경쟁력약화	경쟁력 강화방안 절실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일반기계 및 장비, 정밀기계제품 섬유 및 의류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일반기계 및 장비 정밀기계제품, 전기기기 및 부분품
	경쟁력상실로 생산기지 해외이전	가죽제품	-
	구조조정 필요		금속 1차제품, 자동차 섬유 및 의류, 가죽제품

○ 전라북도의 대중국 진출 유망 품목

- 유망진출품목은 전북은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수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품목을 말함
- 전북의 대중국 가장 유망한 품목은 무기화학품과 각종 화학공업제품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동과 그 제품의 경우도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제품
- 유기화학품과 철도 또는 차량부분품은 과거 유망수출품목에서 순수입으로 전환되고 있어 수출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음

〈표 2〉 전북 대중국 10대 수출품목의 무역특화지수 변화

	품목	2005	2010	형태
28	무기화학품	-0.83	0.76	순수출전환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0.82	0.70	악화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0.03	0.12	소폭 강화
74	동과 그 제품	0.97	0.99	소폭 강화
87	철도 또는 차량 부분품	0.98	-0.32	순수입전환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0.76	0.46	악화
29	유기화학품	0.29	-0.40	순수입전환
38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0.46	0.21	순수출전환
54	인조장섬유	0.97	0.81	악화
73	철강 제품	-0.64	-0.16	악화

○ 전북의 중국자본 유치산업

- 중국자본의 전북 지역 유치에 유력하게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일반기계 및 장비, 섬유 및 의류, 금속1차제품, 정밀기계 제품, 자동차산업으로 나타남(※일반기계 및 장비는 전북이 한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 높음)

1. 전북의 중국특화, 무엇으로부터 출발할 것인가?

1) 전북의 대중국 교류협력 인프라 구축 필요

- 전라북도가 2010년 하반기부터 전북의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기 비전으로 중국특화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함에 따라, 중국이 새만금의 미래전략이자 전북의 비전으로 등장하고 있음
- 중국특화를 미래 장기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비단 전북만이 아님
 - 경기도는 환황해권 대중국 전략산업벨트를 조성하여 경기도를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대중국 국가전략복합특구’로 육성할 계획을 수립
 - 전남도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이벤트와 연계해 해외 관광객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2010~2012 여유(旅遊) 전남의 해’로 지정
 - 인천시는 중국 항만도시들의 급속한 성장과 물류의 증가를 기회삼아 인천항을 중국과의 무역 허브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히 관광분야를 특화하여 중국자본 유치에 집중
- 중국과의 지방정부간 협력모델의 확립과 관련하여 전북이 타 지역에 비해 가지는 비교우위는 새만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새만금 지역은 2011년부터 본격적인 내부개발이 착수됨에 따라, 향후 한국과 전북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호혜적인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새만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중국이 전북과 새만금의 핵심비전이라는 하지만 전북의 대중국 경제협력 성과와 그 잠재력은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님
 - 중국특화 전략의 추진 천명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전북의 대중국 수출입 비중은 전국에 비해 확실

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한 실정

- 전북의 대중국 수출비중(대중국 수출/전체수출)은 '03년 21.4%에서 '10년 12.6%로 하락. 이는 전국의 대중국수출비중 25.1%보다 낮은 상태임
- 전북이 중국특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인 중국 관련 전문 인력의 보유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
- 전북이 단순한 미래 비전의 천명과 전북의 입장이 우선시된 각종 협력 사업들의 나열만으로는 중국 특화전략을 원활하게 수립하고 추진할 수 없으며, 이와 함께 중국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산업분야와 협력방식, 그리고 관련 인프라의 강화가 선행 혹은 동행되어야 함
- 중국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통해 중국 및 여타 외국 자본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산업과 이들 산업의 바람직한 한·중 협력방식을 찾아내고, 중국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인적 자원, 교통, 물류, 그리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 등의 인프라가 강화되어야 함

2) 외국기업의 전북진출을 위한 유망산업 발굴이 시급

- 전북이 추진하고자 하는 중국특화 전략은 단기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새만금 지역의 내부개발 과정에서 중국비즈니스와 관련된 외국 기업과 그 자본의 유치를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
- 사실 한·EU FTA, 한·미 FTA, 그리고 한·중 FTA의 체결로 이어지는 한국 경제의 전면적 개방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획기적인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
- 전북으로서는 다가올 한·중 FTA의 기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미국과 유럽의 기업과 자본 유치를 확대할 수

있고, 이미 체결된 한·EU FTA와 한·미 FTA의 기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국의 기업과 자본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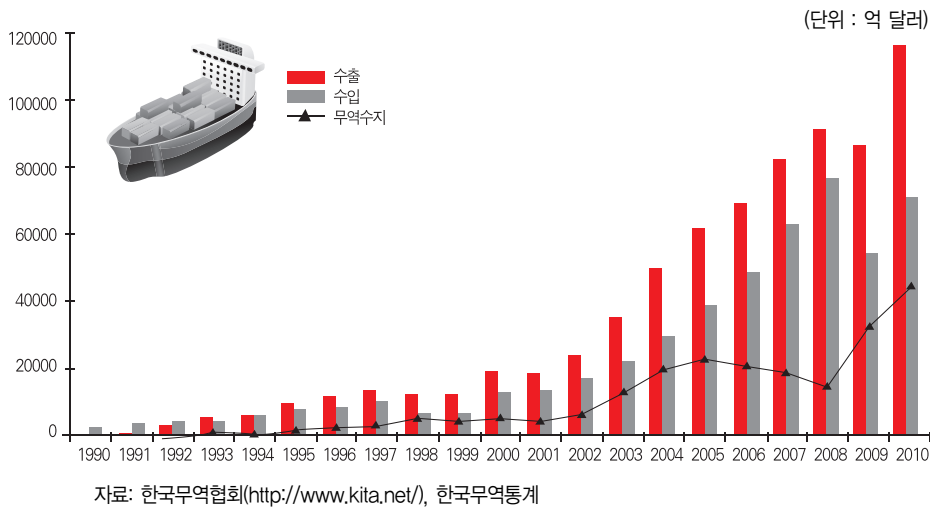
● 따라서 외국기업들의 자본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잠재적 유망산업의 발굴을 위해 한국과 전북의 대중국 비교우위 산업을 분석해 보고자 함

2. 전북의 교역 추이분석

1) 대중국 교역 현황

- 지난 20년간 세계무역에서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중국의 부상이며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에게는 매우 큰 경제적 영향을 줌
 - 1978년 개혁·개방이래 중국은 30여년 동안 연 평균 9.8%의 고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해 오고 있음

- 수출이 한국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에 상당한 기여했으며 한국은 지난 20년간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막대한 무역흑자를 획득하였음
 - 한국은 중국과 무역을 시작한 이후 1992년까지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다가, 1993년을 기점으로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섬



〈그림 1〉 한중 무역 추이(1990-2010)

- 중국은 미국, 일본을 제치고 최대의 무역국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한국의 제1위 교역국임
 - 2010년 대중 수출은 1,168억 달러(총수출 대비 25.1%), 수입은 716억 달러(총수입 대비 16.8%)로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990년 6억 달러의 약 195배(동기간 한국 총 수출액은 7배 증가함)

〈표 1〉 전북도 대중국 수출입 비중 추이

(단위 : %)

년도	대중국 수출비중		대중국 수입비중	
	전국	전북	전국	전북
2000	10.7	9.7	8.0	16.0
2001	12.1	12.7	9.4	15.9
2002	14.6	16.2	11.4	21.8
2003	18.1	21.4	12.3	22.0
2004	19.6	19.0	13.2	16.4
2005	21.8	16.9	14.8	23.5
2006	21.3	12.7	15.7	21.7
2007	22.1	11.3	17.7	22.9
2008	21.7	8.9	17.7	19.0
2009	23.9	13.1	16.8	16.9
2010	25.1	12.6	16.8	18.5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한국무역통계

- 2010년 전북의 총 수출은 105억 485만 달러, 수입은 41억 3,368만 달러임.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

인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2010년 역대 사상 최고치인 63억 7,116억 달러를 기록함

〈표 2〉 전북의 총 수출입 추이

(단위 : 천불, %)

년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0	2,881,057	-	1,501,319	-	1,379,738
2001	2,219,613	-23	1,502,915	0.1	716,699
2002	1,943,083	-12.5	1,599,851	6.4	343,231
2003	2,866,130	47.5	2,042,837	27.7	823,293
2004	4,224,538	47.4	2,522,398	23.5	1,702,140
2005	4,850,995	14.8	2,456,326	-2.6	2,394,669
2006	5,470,985	12.8	2,547,563	3.7	2,923,422
2007	6,354,452	16.1	3,063,108	20.2	3,291,344
2008	6,842,081	7.7	4,103,871	34	2,738,209
2009	6,032,293	-11.8	3,193,849	-22.2	2,838,444
2010	10,504,847	74.1	4,133,681	29.4	6,371,166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한국무역통계

2) 전북의 수출구조분석

- 전북의 대륙별 수출은 아시아, 유럽과 북미 순임. 이 3대 지역이 전체의 2/3을 차지함

- 아시아 대륙으로의 수출비중은 2005년 41.4%로 가장 높고, 2010년은 37.2%를 차지함
- 전북의 국가별 수출시장은 중국이 2006년, 2008년에만 2위고, 기타 년도는 모두 1위임

〈표 3〉 전북의 대륙별 수출비중 추이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아시아	41.4	34.9	31.7	32.5	40.9	37.2
중동	12.2	11.8	14.1	16.3	15.5	12.5
유럽	20.2	20.4	27.9	29.2	22.9	22.5
북미	15.2	14.7	10.1	8.2	7	6
중남미	6.5	11.9	12.3	9.4	7.2	7.6
아프리카	1.7	3	1.8	2.4	1.9	9.6
대양주	2.7	3.3	2.2	2	4.6	4.6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한국무역통계

- 전북의 품목별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공산품이 2008년 98.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 공산품에서 경공업제품과 중화학제품의 비중을 보면 중화학공업제품이 2006년(91.5%), 2010년

(85.8%)로 대부분을 차지함. 중화학제품 중, IT제품의 비중은 10% 미만 이지만, 2006년 3.9%→2007년 3.6%→2010년 8.2%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표 4〉 전라북도 산업별 수출 추이

(단위 : 천불,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5,470,985 (100)	6,354,452 (100)	6,842,081 (100)	6,032,293 (100)	10,504,847 (100)
1차산품	85,009 (1.6)	92,948 (1.5)	101,836 (1.5)	617,766 (10.2)	1,027,470 (9.8)
공산품	5,385,976 (98.4)	6,261,504 (98.5)	6,740,244 (98.5)	5,414,527 (89.8)	9,477,377 (90.2)
경공업제품	379,404 (6.9)	425,065 (6.7)	401,313 (5.9)	327,421 (5.4)	463,365 (4.4)
중화학제품	5,006,573 (91.5)	5,836,439 (91.8)	6,338,931 (92.6)	5,087,107 (84.3)	9,014,012 (85.8)
IT제품	214,658 (3.9)	226,250 (3.6)	260,254 (3.8)	491,889 (8.2)	865,473 (8.2)
기타	4,791,915 (87.6)	5,610,189 (88.3)	6,078,677 (88.8)	4,595,218 (76.2)	8,148,539 (77.6)

주 : 총계=1차산품+공산품; 공산품=경공업제품+중화학제품; 중화학제품=IT제품+기타

자료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한국무역통계

- 전북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에는 무기화학품(28), 플라스틱제품(39), 전기기기와 부분품(85), 차량 부분품(87), 인조장섬유(54), 철강(72) 등임
 - 중국이 최근 내수시장을 확대하면서 전자부품, 석유

화학제품, 철강제품 등이 여전히 대중 주력상품임

- 상위 10대 품목(HS 2단위)의 수출비중은 2009년 91.2%, 2010년 93.0%로 나타나 너무 10대 수출 품목에 편중되어 있음

〈표 5〉 전북의 대중국 10대 수출품목 현황

2009		2010	
1	28	28	무기화학품,
2	39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3	85	85	전기기와 그 부분품
4	74	74	동과 그 제품
5	87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6	29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7	54	29	유기화학품
8	72	38	인조장섬유
9	38	54	철강
10	84	73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인조장섬유
			철강의 제품
10대 품목 비중		91.2%	10대 품목 비중
			93.0%

주: 순위는 금액순이며, 코드는 HS코드 2단위임. 비중은 전체 수출금액에 대한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한국무역통계

● 전북의 대중국 성질별 수출구조는 원자재의 수출비중은 2005년 40%→2010년 33.8%로, 소비재 또한 2005년 7.71%→2010년 5.48%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자본재는 2005년 52.4%→2010년 60.7%로

점점 늘어나고 있음
 • 자본재 수출 비중 증가는 중국내 한국기업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표 6〉 전라북도 대중국 성질별 수출 비중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원자재	39.8	40.8	38.8	40.8	36.6	33.8
자본재	52.4	51.7	54.7	52.6	57.2	60.7
소비재	7.71	7.39	6.54	6.67	6.18	5.48

주: 비중은 전체 수출금액에 대한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한국무역통계

3) 전북의 수입구조 분석

● 아시아대륙의 수입 비중은 2005년 52.1%로 가장 높았고, 2006년 48.4%, 2008년 45.4%, 2009년 41.3%, 2010년 44.6%로 점차 비중이 줄고 있음

• 유럽이 2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3위는 북미 대륙임
 • 중국은 2005~2010년 중 2008년에만 2위를 차지하고 모두 1위를 유지함

〈표 7〉 전북의 대륙별 수입구조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아시아	52.1	48.8	49	45.4	41.3	44.6
중동	4.4	4.5	4.7	3.7	3.3	4.6
유럽	17.1	19.1	18.6	16.7	25.6	20.6
북미	15.5	17.3	17.4	26.1	17.5	19.9
중남미	4	5.5	5.4	3.8	5.9	4.8
아프리카	1.2	0.2	0.4	1	2.2	1.5
대양주	5.7	4.5	4.5	3.3	4.2	4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주: 순위는 금액순임.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한국무역통계

- 전북의 품목별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1차 상품보다는 공산품 비중이 더 높으며, 거의 70%를 차지함
 - 공산품 중에서 경공업제품보다는 중화학공업제품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큰 변화가 없음. 중화학제품 중에서 IT제품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적지만, 2007년 4.8%→2010년 10.9%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
 - 품목별 수출용과 내수용의 비중을 살펴보면 내수용

수입이 수출용 수입보다 더 높으며, 주목할 만한 것은 IT제품의 비중은 수출용이 내수용보다 높음

- 전북의 주요 수입품목은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85), 유기화학품(29), 무기화학품(28), 철도 및 차량 부품과 부속품(87) 등 임
 - 전북 전체 수입액대비 10대 수입품목(HS 2단위) 비중은 2009년 72.3%, 2010년 75.6%로 거의 75% 정도로 수출과 마찬가지로 10대 품목에 편중됨

〈표 8〉 전북의 품목별 수입추이

(단위 : 천불, %)

	2006		2007		2008		2009		2010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계	2,547,563	100	3,063,108	100	4,103,871	100	3,193,849	100	4,133,681	100
(수출용)	857,136	33.6	885,824	28.9	1,199,951	29.2	963,487	30.2	1,342,019	32.5
(내수용)	1,690,428	66.4	2,177,284	71.1	2,903,920	70.8	2,230,362	69.8	2,791,662	67.5
1차상품	799,570	31.4	974,314	31.8	1,274,351	31.1	1,000,179	31.3	1,121,994	27.1
(수출용)	103,992	4.1	78,197	2.6	76,926	1.9	67,089	2.1	141,035	3.4
(내수용)	695,578	27.3	896,116	29.3	1,197,426	29.2	933,090	29.2	980,959	23.7
공산품	1,747,994	68.6	2,088,795	68.2	2,829,520	68.9	2,193,670	68.7	3,011,687	72.9
(수출용)	753,144	29.6	807,627	26.4	1,123,025	27.4	896,398	28.1	1,200,984	29.1
(내수용)	994,850	39.1	1,281,168	41.8	1,706,495	41.6	1,297,272	40.6	1,810,703	43.8
경공업제품	110,466	4.3	115,728	3.8	120,885	2.9	114,239	3.6	144,605	3.5
(수출용)	19,458	0.8	11,165	0.4	15,639	0.4	27,435	0.9	46,609	1.1
(내수용)	91,008	3.6	104,563	3.4	105,246	2.6	86,804	2.7	97,995	2.4
중화학제품	1,637,528	64.3	1,973,067	64.4	2,708,635	66	2,079,430	65.1	2,867,082	69.4
(수출용)	733,686	28.8	796,462	26	1,107,387	27	868,963	27.2	1,154,374	27.9
(내수용)	903,842	35.5	1,176,605	38.4	1,601,249	39	1,210,468	37.9	1,712,708	41.4
IT제품	152,271	6	145,514	4.8	228,462	5.6	285,214	8.9	451,119	10.9
(수출용)	124,829	4.9	125,165	4.1	118,582	2.9	250,786	7.9	404,397	9.8
(내수용)	27,443	1.1	20,349	0.7	109,880	2.7	34,428	1.1	46,723	1.1
기타	1,485,257	58.3	1,827,553	59.7	2,480,173	60.4	1,794,216	56.2	2,415,963	58.4
(수출용)	608,857	23.9	671,297	21.9	988,805	24.1	618,177	19.4	749,978	18.1
(내수용)	876,400	34.4	1,156,256	37.7	1,491,368	36.3	1,176,040	36.8	1,665,985	40.3

주 : 총계=1차상품+공산품 ; 공산품=경공업제품+중화학제품; 중화학제품=IT제품+기타
 전북전체 수입금액에 대한 비중임. 각 품목총액대비 수출용과 내수용의 비중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한국무역통계

〈표 9〉 전북의 대중국 주요 10대 수입품목(HS 2단위) 현황

		2009	2010	
1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2	29	유기화학품	29	유기화학품
3	28	무기화학품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4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28	무기화학품
5	70	유리와 유리제품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6	38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70	유리와 유리제품
7	23	식품공업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8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38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9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10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72	철강
10대 품목 비중		72.3%	10대 품목 비중	75.6%

주 : 순위는 금액순이며, 코드는 HS코드 2단위임. 비중은 전체 수입금액에 대한 비중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한국무역통계

전북, 중국자본 유치에 위해 유망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 전북의 성질별 수입구조를 보면 소비재보다는 주로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입비중이 높으며, 소비재의 비중은 10%대에서 큰 변화가 없음
 - 원자재의 수입비중은 2005년 66.8%→2010년 59.2%로 감소 추세이고, 자본재의 비중은 2005년 21.6%→2010년 30.2%로 소폭 증가함
 - 용도별 비중을 살펴보면, 수출용의 수입보다는 내

수용으로 수입하는 비중이 높음

- 전북의 대중국 성질별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소비재의 수입비중은 전체에 비해 2배 정도 높으며, 이는 가까운 중국으로부터의 소비재의 수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원자재의 수입비중은 2005년 39.9%→2010년 33.2%로 감소 추세이고, 자본재의 비중은 2005년 37.0%→2010년 46.5%로 증가세임

3. 전북의 대중국 산업경쟁력 분석¹⁾

1) 현시비교우위

-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특정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세계 혹은 일부 국가와 비교를 통해 나타냄. RCA지수 값이 1보다 크면(혹은 작으면) 그 품목이 수출에서 비교우위(혹은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전북은 2010년도 세계시장에서 정밀기계제품(5.53), 자동차(3.49),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1.28), 목재 및 종이제품(1.11)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섬유와 의류(0.73)에

서는 2008년까지 경쟁력이 있었지만, 현재 상실함

- 한국은 2010년도 세계시장에서 자동차(4.76), 기타 운송장비(2.31), 전기기기 및 부분품(1.75), 정밀기계제품(1.51), 금속 1차제품(1.18)에서 경쟁력을 갖춤
- 중국은 2010년도 세계시장에서 섬유 및 의류(3.05), 기타 공산품(2.51), 가죽제품(2.26), 전기기기 및 부분품(1.82), 일반기계 및 장비(1.49), 자동차(1.46), 기타 운송장비(1.00) 등에서 경쟁력을 갖춤

〈표 10〉 전북 대세계 비교우위산업(RCA)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농림수산물	0.14	0.14	0.12	0.11	0.17	0.15
음식료품 및 담배	0.25	0.21	0.20	0.20	0.20	0.19
광산품	0.04	0.04	0.05	0.05	0.61	0.65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1.41	1.30	1.29	1.47	1.42	1.28
가죽제품	0.01	0.02	0.01	0.00	0.01	0.00
목재 및 종이제품	1.67	1.64	1.28	1.68	1.49	1.11
섬유 및 의류	1.20	1.16	1.10	1.06	0.87	0.73
비금속광물제품	1.01	0.72	0.56	0.37	0.34	0.17
금속 1차제품	0.70	0.85	0.96	1.00	0.72	0.55
일반기계 및 장비	0.29	0.38	0.45	0.26	0.21	0.35
전기기기 및 부분품	0.37	0.37	0.38	0.42	0.60	0.56
정밀기계제품	5.65	6.10	5.88	6.68	6.49	5.53
자동차	0.00	0.02	0.02	0.01	0.01	3.49
기타 운송장비	0.01	0.02	0.08	0.08	0.09	0.04
기타 공산품	0.06	0.08	0.07	0.07	0.10	0.07

자료 : 한국무역통계자료로부터 계산함

2) 시장별 비교우위

-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는 RCA와 마찬가지로 특정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측정하는 것인데 세계 혹은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특정 상대국(중국)을 대

상으로 함. MCA 값이 1보다 크면 해당 품목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전북의 대중국 비교우위지수를 살펴보면, 전북은 2010년 기타 운송장비(5.69), 광산품(4.48), 금속 1차제품

1) 분석은 한국무역협회의 한국무역통계를 기반으로 수출입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따라서 본 분석결과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경쟁우위산업에 대한 지역 내 중요도 및 지역산업여건과의 연계성 등을 연구할 예정임

(2.77), 가죽제품(2.50),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1.43), 전기기기 및 부분품(1.30) 등이 경쟁력이 있음

- 가죽제품, 금속 1차제품, 전기기기 및 부분품, 광산품, 기타 운송장비 등은 RCA분석 결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없으나 중국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있음
-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은 세계 및 중국시장에서 모두 수출경쟁력 낮춤

○ 한국의 대중국 비교우위지수를 살펴보면, 2010년 기타

운송장비(2.23),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1.53), 가죽제품(1.38), 전기기기 및 부분품(1.19), 일반기계 및 장비(1.11)에서 경쟁력이 있음

- 석유화학과 고무제품, 가죽제품, 일반기계 및 장비 등은 RCA분석 즉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었으나, 중국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있음
- 전기기기 및 부분품과 기타 운송장비는 세계 및 중국시장에서 모두 수출경쟁력을 갖추

〈표 11〉 전북의 대중국 비교우위지수(MCA)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농림수산물	0.21	0.00	0.01	0.01	0.00	0.02
음식료품 및 담배	0.27	0.37	0.53	0.70	0.49	0.74
광산품	0.87	1.49	2.42	2.69	3.47	4.48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1.13	1.53	1.86	2.03	1.27	1.43
가죽제품	2.94	4.24	4.03	2.07	2.66	2.50
목재 및 종이제품	0.15	0.23	0.31	0.34	0.28	0.25
섬유 및 의류	1.09	1.23	1.14	1.32	1.08	0.83
비금속광물제품	1.21	1.44	1.94	1.71	0.77	0.93
금속 1차제품	1.03	1.73	2.34	2.14	2.63	2.77
일반기계 및 장비	0.66	0.91	0.46	0.97	0.64	0.93
전기기기 및 부분품	2.31	3.15	3.77	4.36	1.88	1.30
정밀기계제품	0.93	0.59	0.31	0.17	0.17	0.12
자동차	5.08	0.03	7.87	0.07	7.54	0.00
기타 운송장비	4.38	3.68	4.17	3.28	4.00	5.69
기타 공산품	0.27	0.28	0.49	0.47	0.19	0.30

자료 : 한국무역통계자료로부터 계산함

〈표 12〉 한국의 대중국 비교우위지수(MCA)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농림수산물	0.56	0.45	0.68	0.69	0.47	0.55
음식료품 및 담배	0.39	0.46	0.48	0.48	0.46	0.51
광산품	0.97	1.16	1.02	1.09	0.90	0.92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1.69	1.76	1.77	1.71	1.69	1.53
가죽제품	1.91	1.91	1.92	1.78	1.58	1.38
목재 및 종이제품	0.68	0.62	0.61	0.66	0.64	0.63
섬유 및 의류	1.02	1.06	0.98	0.96	0.86	0.81
비금속광물제품	0.64	0.54	0.53	0.42	0.27	0.29
금속 1차제품	1.22	1.06	0.91	0.86	0.98	0.81
일반기계 및 장비	1.16	1.20	1.04	1.04	1.04	1.11
전기기기 및 부분품	0.96	1.01	1.15	1.19	1.16	1.19
정밀기계제품	0.39	0.35	0.28	0.27	0.39	0.39
자동차	0.01	0.02	0.02	0.08	0.01	0.02
기타 운송장비	2.05	1.52	1.79	1.99	2.13	2.23
기타 공산품	0.91	1.00	0.98	0.66	0.70	0.71

자료 : 한국무역통계자료로부터 계산함

3)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TSI)는 한 나라가 특정 품목의 국제무역에서 상대적으로 수출지향적인지 또는 수입지향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 교역상대국이 해당 품목의 무역에서 상대적으로 수출지향적일수록 TSI가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며, 상대적으로 수입지향적일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가짐

- 전북의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분석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전북은 자동차(0.96), 정밀기계제품(0.90), 광산품(0.69), 섬유 및 의류(0.52), 석유화학과 고무제품(0.32), 전기기기 및 부분품(0.26), 일반기계 및 장비(0.04) 등에서 수출경쟁력을 가짐
 - 정밀기계제품, 섬유 및 의류,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등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출경쟁력을 가지며, 광산품은 수입특화품목에서 2009년부터 수출특화품목으로 전환됨

〈표 13〉 전북의 대세계 무역특화지수(TSI)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농림수산물	-0.38	-0.45	-0.45	-0.71	-0.49	-0.42
음식료품 및 담배	-0.64	-0.68	-0.68	-0.75	-0.71	-0.61
광산품	-0.60	-0.55	-0.44	-0.56	0.56	0.69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0.16	0.19	0.20	0.24	0.24	0.32
가족제품	-0.22	-0.05	-0.49	-0.83	-0.68	-0.80
목재 및 종이제품	-0.06	-0.01	-0.13	-0.02	0.05	-0.06
섬유 및 의류	0.51	0.48	0.53	0.47	0.47	0.52
비금속광물제품	0.19	0.38	0.25	-0.07	0.04	-0.13
금속 1차제품	0.04	0.07	0.13	-0.15	-0.17	-0.10
일반기계 및 장비	-0.08	0.03	0.05	-0.29	-0.38	0.04
전기기기 및 부분품	0.10	0.19	0.22	0.09	0.16	0.26
정밀기계제품	0.96	0.95	0.93	0.93	0.93	0.90
자동차	-0.88	0.04	0.09	-0.92	-0.73	0.96
기타 운송장비	-0.89	-0.83	-0.41	-0.49	-0.33	-0.49
기타 공산품	0.07	0.02	-0.16	0.09	0.17	-0.08

자료 : 한국무역통계자료로부터 계산함

- 전북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는 2010년 정밀기계제품을 제외하고 대세계 무역특화지수와 일치하며 정밀기계제품은 2006년부터 수출특화를 유지해 왔지만, 지속적으로 하락되어 2010년에는 수입특화로 전환
 - 섬유 및 의류,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전기기기 및 부분품, 자동차 등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출경쟁력을 보임. 광산품, 기타 운송장비는 수입특화품목에서 각각 2006년과 2009년부터 수출특화품목으로 전환

〈표 14〉 전북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TSI)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농림수산물	-0.38	-0.45	-0.45	-0.71	-0.49	-0.42
음식료품 및 담배	-0.64	-0.68	-0.68	-0.75	-0.71	-0.61
광산품	-0.60	-0.55	-0.44	-0.56	0.56	0.69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0.16	0.19	0.20	0.24	0.24	0.32
가족제품	-0.22	-0.05	-0.49	-0.83	-0.68	-0.80
목재 및 종이제품	-0.06	-0.01	-0.13	-0.02	0.05	-0.06
섬유 및 의류	0.51	0.48	0.53	0.47	0.47	0.52
비금속광물제품	0.19	0.38	0.25	-0.07	0.04	-0.13
금속 1차제품	0.04	0.07	0.13	-0.15	-0.17	-0.10
일반기계 및 장비	-0.08	0.03	0.05	-0.29	-0.38	0.04
전기기기 및 부분품	0.10	0.19	0.22	0.09	0.16	0.26
정밀기계제품	0.96	0.95	0.93	0.93	0.93	0.90
자동차	-0.88	0.04	0.09	-0.92	-0.73	0.96
기타 운송장비	-0.89	-0.83	-0.41	-0.49	-0.33	-0.49
기타 공산품	0.07	0.02	-0.16	0.09	0.17	-0.08

자료 : 한국무역통계자료로부터 계산함

4) 무역특화지수의 동태적 변화

- 2005~2006년의 평균 TSI(기준시점)와 2009~2010년의 평균 TSI(비교시점) 사이에 무역특화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봄
- 전북의 대세계 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비금속광물제품, 금속 1차제품과 가죽제품이고, 경쟁력이 강화된 것은 광산품, 자동차, 기타 운송장비임
 - 가죽제품(-0.14→0.74)은 수입특화가 심화되어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비금속광물제품(0.29→-0.05)과 금속 1차제품(0.06→0.14)은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되어 경쟁력을 상실함
 - 기타 운송장비(-0.86→0.41)는 수입특화정도가 약

화되고, 광산품(-0.58→0.63)과 자동차(-0.42→0.12)는 전북의 수출전략제품임

- 전북의 대중국 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일반기계 및 장비, 정밀기계제품, 가죽제품, 비금속광물제품이며, 경쟁력이 강화된 것은 광산품, 금속 1차제품, 자동차, 기타 운송장비임
 - 비금속광물제품(-0.20→-0.73)의 수입특화가 심화되어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가죽제품(0.07→-0.70)은 경쟁력 상실함. 일반기계 및 장비(0.63→0.14), 정밀기계제품(0.96→0.00)은 경쟁력 강화방안이 절실함
 - 광산품(-0.85→0.65), 금속 1차제품(-0.14→0.43), 자동차(-0.27→0.92)와 기타 운송장비(-0.11→0.59)는 대중국 수출전략제품임

〈표 15〉 전북의 산업별 TSI 동태적 변화

	대세계 TSI		대중국 TSI	
	TSI _t (05~06)	TSI _t (09~10)	TSI _t (05~06)	TSI _t (09~10)
농림수산물	-0.42	-0.46	-1.00	-1.00
음식료품 및 담배	-0.66	-0.66	-0.85	-0.82
광산품	-0.58	0.63	-0.85	0.65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0.18	0.28	0.39	0.23
가죽제품	-0.14	-0.74	0.07	-0.70
목재 및 종이제품	-0.04	-0.01	-0.18	-0.13
섬유 및 의류	0.50	0.50	0.49	0.41
비금속광물제품	0.29	-0.05	-0.20	-0.73
금속 1차제품	0.06	-0.14	-0.14	0.43
일반기계 및 장비	-0.03	-0.17	0.63	0.14
전기기기 및 부품품	0.15	0.21	0.08	0.14
정밀기계제품	0.96	0.92	0.96	0.00
자동차	-0.42	0.12	-0.27	0.92
기타 운송장비	-0.86	-0.41	-0.11	0.59
기타 공산품	0.05	0.05	-0.89	-0.85

〈표 16〉 전북의 산업별 TSI 경쟁력 분석

	경쟁력분석	경제적 의미	대세계 TSI	대중국 TSI
경쟁력 강화	수출특화제품으로 경쟁력 강화	수출주력제품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전기기기 및 부품품	전기기기 및 부품품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	수출전략제품	광산품, 자동차	광산품, 금속 1차제품 자동차, 기타 운송장비
	수입특화품목으로 수입특화정도 약화	수출상품화 가능성	음식료품 및 담배 목재 및 종이제품, 기타 운송장비	음식료품 및 담배 목재 및 종이제품, 기타 공산품
경쟁력 약화	수출특화품목으로 경쟁력 약화	경쟁력 강화방안 절실	정밀기계제품 섬유 및 의류, 기타 공산품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섬유 및 의류 일반기계 및 장비, 정밀기계제품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	경쟁력상실로 생산기지 해외이전	비금속광물제품 금속 1차제품	가죽제품
	수입특화가 심화	구조조정 필요	농림수산물, 가죽제품 일반기계 및 장비	농림수산물 비금속광물제품

주 : 적색 글씨로 표기한 것은 변화가 뚜렷한 품목임

전북, 중국자본 유치에 위해 유망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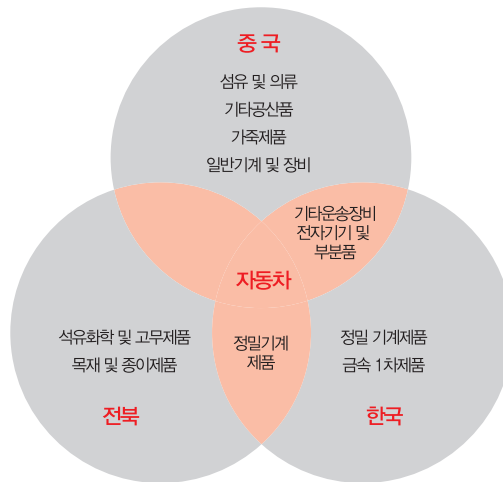
4. 대중국 비교우위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1) 전북의 대중국 비교우위산업

- 대세계 현시비교우위지수(RCA)에서 전북, 한국과 중국은 자동차에서 모두 경쟁력이 있음
 - 전북과 한국은 자동차 외에 정밀기계제품에서 경쟁

력이 있음. 그 외에도 전북은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과 목재 및 종이제품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음

- 한국과 중국은 자동차 외에 기타 운송장비, 전기기기 및 부분품에서 모두 경쟁력을 가짐



〈그림 2〉 전북, 한국, 중국의 대세계 비교우위산업(2010)

-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기타 운송장비, 전기기기 및 부분품을 제외하고 많은 산업에서 세계시장에서 중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만, 중국이 한국의 수출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자동차산업의 경우 중국의 자동차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 속에서 한국 자동차의 수출품 또한 꾸준히 시장을 넓혀가고 있어, 양국의 수출경쟁력의 강화가 상대국의 비교우위를 잠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전북의 대중국 비교우위산업은 기타 운송장비, 광산품, 금속 1차제품, 가죽제품,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전기기기 및 부분품임
 - 그 중 기타 운송장비,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전기

기기 및 부분품은 전북, 한국과 중국이 상대국시장에서 공통으로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는 산업이며, 가죽제품은 전북과 한국이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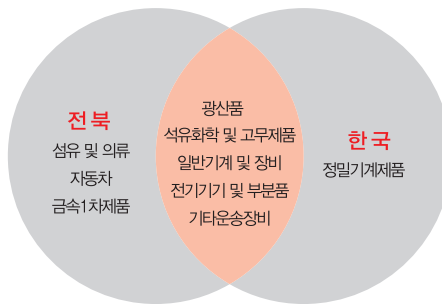
- 또한 가죽제품, 금속 1차제품, 전기기기 및 부분품, 광산품, 기타 운송장비 등은 RCA 분석에서는 비교열위산업으로 분석되었으나 MCA 분석에서는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이는 세계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은 없으나 중국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은 세계와 중국시장에서 모두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표 17〉 전북, 한국과 중국의 상대국 시장에서의 비교우위산업(2010)

전북	한국	중국
기타 운송장비 광산품 금속 1차제품 가족제품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전기기기 및 부분품	기타 운송장비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가족제품 전기기기 및 부분품 일반기계 및 장비	농림수산물 금속 1차제품 광산품 자동차 음식료품 및 담배 기타 운송장비 비금속광물제품 전기기기 및 부분품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주: 위에서 아래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높은 산업이며, 적색 글씨는 공통 비교우위산업임.

- 전북과 한국은 광산품,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일반기계 및 장비, 전기기기 및 부분품과 기타 운송장비가 대중국 수출특화산업임
- 그 외에 전북은 섬유 및 의류, 자동차, 금속 1차제품에서 아직 중국에 수출특화되어 있음



〈그림 3〉 전북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특화산업(2010)

- 상위 분석에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의 경쟁력 변화분석을 해본 결과, 한국과 전북은 공동으로 광산품, 기타 운송장비는 수출전략제품임
 - 목재 및 종이제품은 과거에 비해 수입특화지수가 작아져 수출상품화 가능성이 있음
- 그 외에 전기기기 및 부분품은 전북의 수출주력제품이며, 금속 1차제품, 자동차는 전북의 수출전략제품임

〈표 18〉 전북, 한국의 산업별 TSI 경쟁력 변화 분석

	경제적 의미	전북 대중국 TSI	한국 대중국 TSI
경쟁력 강화	수출주력제품	전기기기 및 부분품	광산품, 기타 운송장비
	수출전략제품	광산품, 기타 운송장비, 금속 1차제품, 자동차	-
	수출상품화 가능성	목재 및 종이제품	목재 및 종이제품
경쟁력 약화	경쟁력 강화방안 절실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일반기계 및 장비 정밀기계제품, 섬유 및 의류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일반기계 및 장비 정밀기계제품, 전기기기 및 부분품
	경쟁력상실로 생산기지 해외이전	가족제품	-
	구조조정 필요		금속 1차제품, 자동차, 섬유 및 의류, 가족제품

전북, 중국자본 유치에 위해 유망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2) 전북의 대중국 유망 품목

- 향후 전북의 대중국 유망 품목을 추론하여 보면 전북 입장에서 수출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수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품목들이 유망 진출 품목으로 될 것으로 보임
- 2005년과 2010년의 무역특화지수의 변화를 통해 전북의 대중국 10대 수출품목과 수입품목의 수출경쟁력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수출품목에서는 ‘동과 그

제품’, ‘인조장섬유’, 수입품목에서는 ‘유리와 유리 제품’,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은 전북의 10대 수출품목인 동시에 수입 품목, 즉 8개 품목에서 전북과 중국은 비교우위를 공유하고 있음

- 이는 중국과 전북의 비교우위산업이 겹침으로서 현재 치열한 경쟁을 시사할 뿐 아니라, 중국의 성장과 산업집중을 고려할 때 전북의 입장에서 향후 지속적인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표 19〉 전북 대중 10대 수출품목의 무역특화지수 변화

	품목	2005	2010	형태
28	무기화학품	-0.83	0.76	순수출전환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0.82	0.70	악화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0.03	0.12	소폭 강화
74	동과 그 제품	0.97	0.99	소폭 강화
87	철도 또는 차량 부분품	0.98	-0.32	순수입전환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0.76	0.46	악화
29	유기화학품	0.29	-0.40	순수입전환
38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0.46	0.21	순수출전환
54	인조장섬유	0.97	0.81	악화
73	철강 제품	-0.64	-0.16	악화

〈표 20〉 전북 대중 10대 수입품목의 무역특화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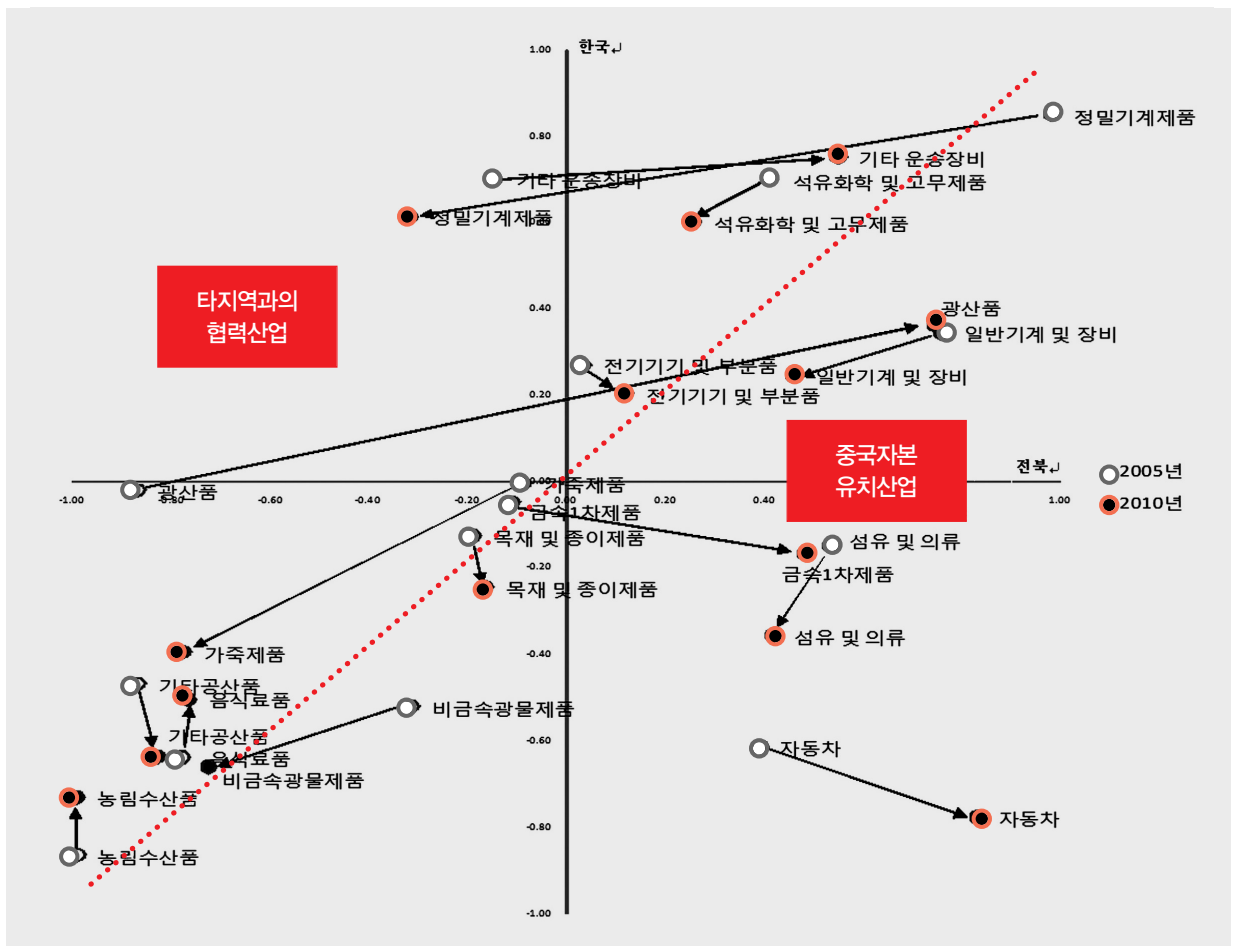
	품목	2005	2010	형태
87	철도 또는 차량 부분품	0.98	-0.32	순수입전환
29	유기화학품	0.29	-0.40	순수입전환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0.03	0.12	소폭 강화
28	무기화학품	-0.83	0.76	순수출전환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0.82	0.70	악화
70	유리와 유리제품	-0.45	-0.76	악화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1.00	-1.00	현상유지
38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0.46	0.21	순수출전환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0.76	0.46	악화
72	철강	0.35	-0.12	순수입전환

- 전북의 대중국 10대 수출품목 중에 가장 유망한 품목은 '무기화학품' 과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임
 - 이는 과거의 수입특화에서 대중국 순수출로 전환된 품목이며 또한 '전기기와 부분품', '동과 그 제품' 은 과거에도 수출특화 품목이었지만, 현재도 지속적으로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품목으로, 향후 전북의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유기화학품' 과 '철도 또는 차량 부분품' 은 과거의 유망 수출품목에서 순수입으로 전환되고 있어, 수출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음. 이러한 품목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대중국 가격경쟁력 확보의 노력보다는 기술경쟁력이 확보될 있도록 전략적으로 특화시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는 것이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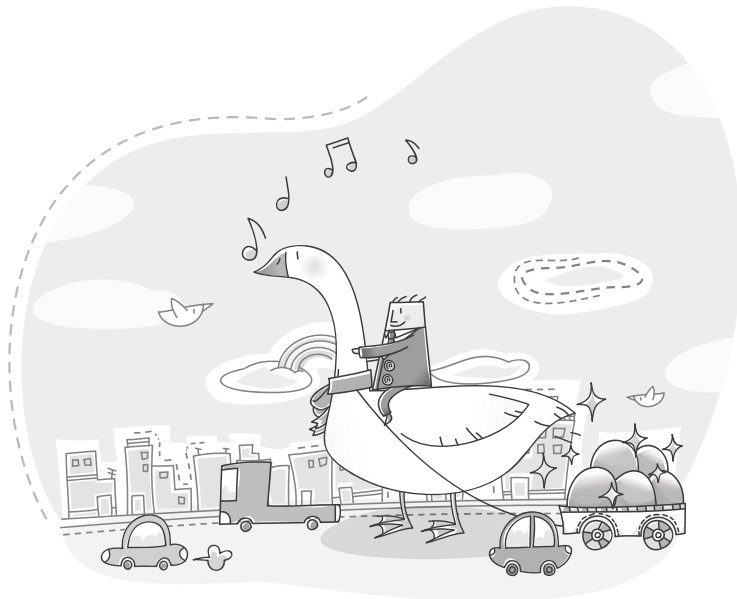
3) 전북의 중국자본 유치산업

- 전북, 한국의 대중국 산업 TSI자료를 통해 2005~2010년의 수출경쟁력의 동태적 변화양상을 통해 전북의 상대적 경쟁력을 살펴봄으로 중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전략적 산업이 무엇이 있을지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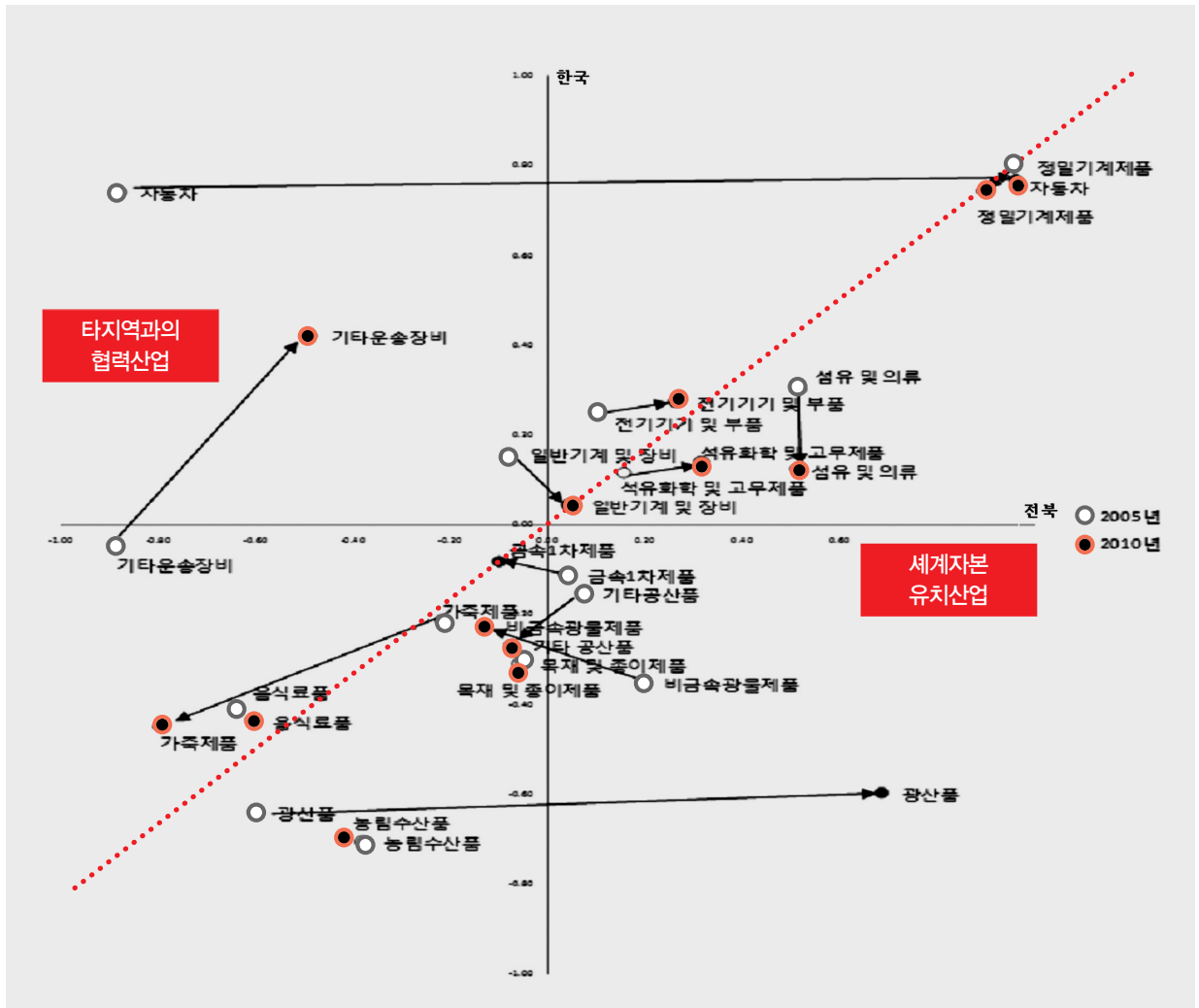


〈그림 4〉 전북, 한국의 대세계 TSI

전북, 중국자본 유치를 위해 유망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 분석결과, 일반기계 및 장비는 한국의 경쟁력도 향상되었지만 전북이 한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중국자본의 전북지역 유치에 매우 유력한 산업임
- 섬유 및 의류, 금속 1차제품, 자동차산업의 경우, 한국은 중국에 비해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없지만, 전북은 대중국 경쟁력이 있는 산업임
 - 전라북도 전략산업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를 보호하고 육성을 통해 중국자본의 전라북도 특정 지역에 유치하는데 주력해야 할 산업으로, 이 산업들은 중국자본 외에 중국시장에 우회적인 진출을 원하는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함
-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전기기기 및 부분품, 기타 운송장비, 정밀기계제품의 경우 한국의 대중국 경쟁력은 있지만, 전북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임
 - 이 산업은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한국의 경쟁력 있는 타지자체 업체들과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기존 가치사슬체제 내 참여하여 운영하는 경쟁전략으로 변화시켜 대중국 경쟁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음
- 전북, 한국의 대세계 산업 TSI자료를 통해 한미, 한·EU FTA 등의 환경변화를 활용하여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에 우회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 자본유치 유망업종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함
- 분석결과,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섬유 및 의류, 정밀기계제품, 자동차산업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2005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 한국의 경쟁력도 향상되었지만, 전북이 한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해외시장에 우회적 진출을 위한 중국자본의 전북지역 유치에 매우 유력한 산업임
- 전기기기 및 부분품, 기타 운송장비의 경우 한국의 대세계 경쟁력은 있지만 전북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임
 - 이들 산업은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한국의 경쟁력 있는 타지자체 업체들과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기존 가치사슬체제 내 참여하여 운영하는 경쟁전략으로 변화시킴으로서 이를 통해 대중국 경쟁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음



〈그림 5〉 전북, 한국의 대세계 TSI



Issue Briefing



전북발전연구원

560-86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효자동3가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